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69 (2018): 21-52
http://doi.org/10.24333/jkots.2018.24.3.21

성서번역에서 언어·윤리·권력: 남기고 가는 문제[1)]

민영진(대한성서공회)

번역자의 길 35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3년 7월부터 대한성서공회의 새 번역 프로젝트에 번역자(飜譯者)로 초청을 받아, 성경 번역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대한성서공회에서는「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성경전서 개역개정」(1998),「공동번역성서 개정」(2000),「표준새번역 개정」(2001, 새번역 2004) 작업에 번역자로 참여하여, 번역 외에 실제로는 기술 지원(支援)업무, 번역 조정(調整) 업무, 번역 관리 업무 등을 함께 맡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는 몽골성서공회(Bible Society of Mongolia)의 구

1) "남기고 가는 문제"라는 제목 곁다리는 이제는 35년 동안이나 성경 번역에 종사해 온 나 자신이 이 문제를 더 추구할 능력도 시간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후학들에게 이 문제를 남기고 간다는 뜻이다.

www.kci.go.kr

약 번역 컨설팅(1994년 9월-1996년 6월), 몽골연합성서공회(Mongolia Union Bible Society)의 구약 번역 컨설팅을 맡았었다(2007년 7월-2010년 2월).[2]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는 「라오역 성경전서 개역」[3]의 개정 작업(2002년 4월-2012년 11월), 「라데어 성경전서」[4] 번역 작업(2009년 10월-2013년 10월), 「부농 신약전서」[5] 번역 작업(2010년 6월-2015년 3월)을 포함하여, 2017년 7월 14일 「크메르어 구역 성경전서 개역」[6]을 봉헌하기까지, 35년 동안, 번역자로, 번역컨설

---

2) 〈몽골성서공회〉 번역 컨설팅 (1) 1994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두 주간 동안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몽골성서공회(the Bible Society of Mongolia)(BSM)의 번역자 John Gibbens가 번역한 구약 초역을, 당시 아태지역 번역 코오디네이터였던 Dr. Daniel Arichea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the United Bible Societies)(UBS) 번역 컨설턴트였던 민영진이 함께 검토하였다. (2) 1996년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두 주간 동안은 John Gibbens가 한국 서울로 구약 초안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민영진과 함께 검토하였다. (3) 1997년에 BSM이 UBS와의 관계를 끊고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John Gibbens가 이끄는 BSM과 UBS의 번역 컨설팅 작업은 일단 중단된다. (4) BSM과 UBS의 결별은 두 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시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번역학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로 언어 · 윤리 · 권력의 문제를 필자가 처음으로 실감하던 때이기도 했다. (5)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 UBS에서는 몽골 현지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 안교성 목사를 UBS 간사로 초청하였다. 몽골어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그의 헌신과 공헌은 마당을 달리하여 따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는 BSM을 대신하여 〈몽골연합성서공회〉(the Mongolian United Bible Society)(MUBS)가 UBS와 번역사업을 함께 하도록 주선하였다. 그 첫 사업이 몽골에 있던 각 교단 선교사들이 함께 조직한 〈몽골성서번역위원회〉(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MBTC)에서 번역한 성경을 MUBS가 개정하여 몽골 교회가 함께 사용하게 하자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BSM이나 MUBS 안의 언어 · 윤리 · 권력의 문제는 구두로 언급할 뿐 이 보고서에서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몽골연합성서공회〉(MUBS) 개정작업 컨설팅 시작 (1) 2005년 7월에는 UBS는 BSM과 MUBS 둘 다를 향해 성경번역에서 다시 함께 협조하기로 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 컨설팅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 때 UBS에서는 컨설턴트를 대폭 증원한다. MBTC 번역을 개정하는 MUBS에는 Dr. Suee Yan Yu, Dr. Moshe Min, Dr. Young–Jin Min을, 그리고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가 Dr. Jesoon Chung을 TC로 보내어 UBS TCs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였다. 관계가 개선된 BSM에는 Daud Soesilo와 또 한 사람의 TC가 John Gibbens의 구약 번역을 함께 검토하게 하였다. (2) 2007년 7월 2일부터 14일까지 MUBS가 준비한 개정 초안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검토하였다. (3) 2008년 7월에는 Dr. Jesoon Chung과 Dr. Moshe Min이 개별적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신약 번역 검토를 계속했다. (4) 2010년 1월말에서 2월 초까지 두 주간 동안 서울에서 검토 작업을 번역자들과 함께 했다. 1/4을 남기고 UBS 컨설턴트의 작업은 중단되었다. 몽골 번역자들 Erika, Sarah, Dash, Dugerma 등이 이 작업을 마무리하게 했다. 컨설턴트들이 마무리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MUBS 안의 언어 · 윤리 · 권력 등에 연관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 한 편을 소개한다. 안교성, "현대몽골성경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제42호 (2018년 4월)

3) *The Holy Bible in Revised Lao Version* (United Bible Societies, 2012). Dedication: At Vientiane, 29 Nov., 2012

4) *KINH THAN, Tieng Ede – 2015/ The Holy Bible in Rade Language* (United Bible Societies, 2015). Dedication: At Ho Chi Minh City, 20 July, 2015

5) *Bunong New Testament* (United Bibke Society, 2016)

6) *The Holy Bible in Revised Khmer Old Version* (United Bible Societies, 2016). Dedication: At Phnom Penh,

www.kci.go.kr

턴트로, 때로는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2002년 11월-2007년 11월) 활동했다.

우리말 번역이나 개정을 제외한, 몽골, 라오, 라데, 부농, 크메르 등 5개 언어 번역과 개정 작업 컨설팅을 하면서,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 뜻을 옮기는 작업(번역학에서 배우듯이)만이 아니라, 한 번역이 완성되어 출판되고 보급되는 과정에 언어(Language)와 윤리(Ethics)와 권력(Power)이 복잡 미묘하게 개입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이 세 가지는 독자적 영역이 아니다. 서로 엉켜 있다. "번역"이 기획되고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전체 과정에서 이 세 요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1. 언어

1) 번역 방법과 관련하여

20세기까지의 번역 문제는 주로 언어의 문제였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천언어와 대상언어 사이의 의미 전달의 정확성이 문제의 초점이었다. 원문의 의미가 충실하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 대상언어에서 선택된 대응어가 원천언어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 범주에 든다. 형식일치의 축자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전달에 역점을 둔 내용동등성, 곧 기능동등성 번역을 할 것인가가 늘 문제가 되었다.[7]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실제 번역 현장에서는 극단적 축자역(예를 들면, YLT)과 극단적 의미 번역(예를 들면, LB, NLB, TEV) 사이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한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된 예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BibleWorks[8]나 Logos[9]나 Bible YouVersion[10] 등에 실린 50여종의 영

14 July, 2017

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도서출판 두란노, 1996), 55–57쪽에서 Eugene Nida의 번역 이론 요약

8) Software for Biblical Exegesis and Research. https://www.bibleworks.com/

9) Logos Bible Software. https://twitter.com/logos

10) 무료 성경 앱 https://www.facebook.com/YouVersion/

www.kci.go.kr

어 번역을 예로 든다면, 축자역을 대표하는 YLT를 제일 오른쪽에, 의미번역을 대표하는 TEV을 제일 왼쪽에 놓고, 나머지 번역들을 그 사이에 축자번역과 의미번역의 정도별로 좌우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중간쯤 오는 것은 ESV, NET, NIV, NRSV, RSV 등이 될 것이고, 우로는 GNV, KJV, RV, ASV ...., 좌로는 BBE, CEV, LB, NLB, TEV... 등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11]

2) 대응어 선택과 관련하여

특수 용어의 대응어 선택도 언어 문제 속한다. 신 칭호를 예로 들면, 각 언어 번역에서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엘로힘'이나 '테오스'의 대응어 결정 문제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같은 번역에서도 상제판(上帝版)과 신판(神版)이 따로 나왔다. 중국어 성서의 대표적인 두 번역은 「대표자역본(代表者譯本)」(the Delegates Version)」(1854)과 「화합역본(和合譯本)」(the Union Version)」이다. 「대표자역본」은 "하나님"을 '신(神)'으로 표기한 「신판(神版)」과 '상제(上帝)'로 표기한 「상제판(上帝版)」으로 출판되었다.[12] 우리말 번역에서 "하ᄂᆞ님" "하느님" "하나님" 문제는 교회 내적으로는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13]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으며,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는 한 때, "한, 세계인류성도종"이라고 하는 대종교(大倧教) 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대상으로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기독교는 이 용어를 쓰지 말도록 법원에 제소(提訴)한 바가 있다.[14] 아

---

11) 여기 번역본 약어들은 BibleWorks의 것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별도 소개를 생략한다.

12)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성서공회, 1995, 2005), 41쪽.

13) 1977년 「공동번역 성서」가 "하느님"을 쓰면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

14) (1) 1992년 11월 7일자 소장(疏章) – 원고(原告) "한, 세계인류성도종"; 피고(被告) 천주교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주식회사 보진재, 성덕인쇄사; 청구(請求) 취지: 피고는 "하느님" 용어 쓰지 말 것,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잠칭(讒稱)하는 성서를 발행, 편집, 반포하지 말 것, "하나님" 칭호 잠칭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2) 변론(辯論) 종결 1993년 12월 16일. (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선고(判決宣告) 1994년 1월 27일. 주문(主文)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1994년 10월 4일. 주문(主文)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대법원 판결 1995년 3월 15일. 주문(主文) "상고(上告)를 모두 기각(棄却)한다. 상고(上告)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재판은 1992년 12월 7일에 시작되어 1995년 3월 15일까지 2년 3개월이 걸려 1–3심이 모두 끝났다. 위자료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 원고는 (피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www.kci.go.kr

랍어역 성경번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15] 몽골 성경 번역에서도 '엘로힘'이나 '테오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었다.[16] 우리말 번역「개역」과「개정」은 '밥티조'나 '밥티스마'를 "세례"라고 번역했고, "침례"라는 용어가 중요성을 띄면서 같은 번역에서「침례판」이 따로 나오기도 했다.[17]

3)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및 비유대문화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존 셸비 스퐁(John Shelby Spong)은 유대교 개념의 용어들이 비유대문화권이나 비유대언어권에서 축자적으로 읽힐 때 그러한 성서적 문자주의가 야기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BIBLICAL LITERALISM: A Gentile Heresy*[18] 이라는 그의 책 제목이 섬뜩하다. 기독교가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으면, 이교도와 다름없는, 이단이 되고 만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좀 더 확대하면 예수의 말이나 예수에 관한 말을 축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제의력(Jewish Liturgical Year), 혹은 회당제의(the synagogue liturgy)의 맥락에 따라 편집된 마태복음을 읽을 때와 헤브라이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비유대인(gentiles)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마태

가 있다고 주장하나, 먼저 원고가 원고 자신이 아닌 한민족이라고 하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할 아무런 권원(權原)을 찾아볼 수 없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5) 말레이시아 성서공회는 아랍어역 성경에서 '엘로힘'이나 '테오스'를 '알라'로 번역한다. 말레시아의 이슬람 쪽에서는 정부에 압력을 넣어 기독교가 이 용어를 못 쓰게 하려고 압력을 넣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정부가 이슬람 쪽 요청을 거부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어서 난처한 상황인데 말레시아 성서공회는 이슬람이 생기기 이전부터 아랍어권 기독교에서 '알라'를 사용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된다면 대한성서공회의 "하나님 재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16) 고은이, "내몽골의 하나님 용어",「성경원문연구」제18호 (2006), 130-141; 민영진, "Bible Translations for Asian Audiences: Nestorian Experiment in T'ang Dynasty China and Mongolian Equivalent for Deity",「성경원문연구」제18호 (2006), 98-113.

17) 대한성서공회는「개역한글판」과「개역개정판」에「침례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반포한다.「표준새번역」(1993)과 그것의 개정판인「새번역」(2004)은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 90여 곳에 각주를 달아 "또는 '침례'"라고 설명한다. "세례"와 "침례"는 본질적으로는 언어 영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힘이 결속된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18) John Shelby Spong, *BIBLICAL LITERALISM: A Gentile Heresy*, San Francisco: Harper One, 2016.

www.kci.go.kr

복음을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을 때 서로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헤브라이즘이 이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스퐁의 경고를, 한편으로는 정중히 받아들이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헤브라이즘 배경에서 생산된 작품이 헬레니즘 배경에서 "번역"이 된다고 할 때,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는 이들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읽을 때 의미 분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두 언어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번역이 적절한 대응어를 찾지 못할 경우를 가상해 본다.

(1) 로고스(λόγος)와 다바르와 도(道)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 "Ε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할 때 이 '로고스'는 어떤 히브리어 낱말의 번역이었을까? 추측컨대, '사파'(הָפָשׂ, lip, 입술, 창 11:1), '다바르'(רָבָד, thing, 사물, 창 11:1), '라숀'(וֹשׁל, tongue, 혀, 창 10:5), '밀라'(הָלִמ, utterance, 발언, 시 139:4), '토라'(הָרוֹת, direction, 지시, 출 12:49)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로고스'를 선택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를 히브리어로 되 번역할 때 델리치(Franz Julius Delitzsch)[19]와 살킨손-긴스버그(Salkinson-Ginsburg)[20]는 '다바르'를 대응어로 선택하였다. 아람어 페쉬타는 '밀라'를, 라틴어 불가타역은 'Verbum'을, 프랑스어역들은 'la Parole'(LSG) 혹은 'le Verbe'(FBJ)를 선택하였다. 도이치어역들은 'das Wort'(L45) 혹은 'der Logos'(MNT)를 선택하였다.[21]

---

19) Delitzsch, *Hebrew New Testament*. 19세기 독일 학자 Franz Julius Delitzsch(1813~1890)가 Elzevir 편집의 *Received Greek Text*(1624)를 번역한 것이다. 초판이 1877년에 나온다. 아직 현대 히브리어가 생성되기 이전이다. 낱말이나 표현이 구약의 것을 그대로 따른 축자 번역이다.

20) *Hebrew New Testament* 1886/1999. Salkinson–Ginsburg이 편집해서 펴낸 Hebrew New Testament (1886/1999). 이것 역시 Textus Receptus Greek NT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다. 1999년에 개정되어 나온 것이다.

21) 타르굼 중 하나[The Aramaic Bible (The Targums)]는 *Memer*, 혹은 *ma'amar* רמאמ로 번역한다. http://tyndalearchive.com/scriptures/abt.htm 창 1:1 "*From* the beginning *with wisdom the Memra of the Lord*

www.kci.go.kr

중국어 번역 성경에서 '로고스'를 '도(道)'로 번역한 것[22]이 정독(正讀)이라면 다행이고, 오독(誤讀)이라도,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굴절된 것이라고 해도, 이방인(異邦人)의 이단적(異端的) 읽기라기보다, 기능적으로는 축자적인 "언(言)"보다는 그나마 "도(道)"가 그레코-로만 세계의 '로고스'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23] 우리말 번역에서는 초창기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를 중국어 번역 성경을 따라 '도(道)'라고 번역하였다.[24] 「新約全書국한문」(1906)에서는 "太初에 道가 (或은 言이라) 有ᄒᆞ니"라고 하여 처음으로 '道(言)'라고 하여 '로고스'가 '道'로 번역될 수도 있고, '言'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한글 전용판에서는 「신약젼셔」(II)(1900)부터 본문 안에서 '도'가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당분간 본문 안에서는 '말씀' 다음에 괄호를 하여 '말ᄉᆞᆷ(혹은 도)'라는 형식이 유지된다.[25] 그러다가 1938년 「개역」부터 1961년 「개역한글판」까지는 본문 안에는 '말씀'이, 난외 각주에는 "혹은 도"라는 설명이 표기된다. 1998년 「개정판」에서는 "헬, 로고스"라는 각주가 붙고, '도(道)'는 완전히 사라진다. 1967년 「신약전서 새번역」, 1971년 「공동번역 신약」, 1993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등에서도 '말씀'만 남고, '도'는 사라진다.

우리말 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도'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이 그리스어 '로고스'의 우리말 대응어라거나, 중국어 성경의 '道'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거나, 저 멀리 히브리어 '다바르'나 '사파'나 '라숀'이나 '밀라' '마아마르'등으로까지 소급하여 '말씀'이나 '도'가 이러한 여러 히브리어 낱말들 중 어느 하

---

created *and perfec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탈릭은 타르굼의 paraphrase). *Memer*, or *ma'amar* רמאמ, Strong's 3982 and 3983, an Aramaic word meaning: word, command, appointment. It comes from the Aramaic, רמא, Strong's 565, *'imrah*, or *'emrah* (*em'-raw*). It means commandment, speech, or word. It is the equivalent of logos (λογος), Strong's 3056, in the Greek.

22) 「代表者譯本」(1854), 「新約串珠」(1895), 「新約全書」(1896), 「新約聖經 文理串珠」(1912), 「舊新約聖書」(1933), 「聖經 中文新譯」, 「聖經 化合本」, 「聖經 現代中文譯本」(1966), 「思高譯本」(1968), 「呂振中譯本」(1970) 등이 "로고스"를 "도(道)"로 번역한다.

23) 민영진, "다바르, 로고스, 도", 「들소리문학」 11(2013년 6월), 204–216 중 208쪽에서 발췌

24) 「예수셩교 요안ᄂᆡ복음젼셔」(1882), 「예수셩교셩셔 요안ᄂᆡ복음」(1883), 「예수셩교젼셔」(1887), 「요한복음젼」(1891), 「약한의긔록ᄒᆞᆫ대로복음」(1893), 「신약젼셔」(I)(1900),

25) 「신약젼셔」(III)(1900), 「신약젼셔」(1904).

www.kci.go.kr

나의 번역일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19세기 말에 우리말 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도'는 그저 그들이 이해한 대로의 '도'였을 뿐이다. 당대 우리 독자가 알고 있던 도의 개념이 그 번역 본문을 읽던 그들을 지배했을 것이다. 번역에서는 원문의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느 본문이 번역되었을 때 그 본문이 새로운 독자를 만나게 되고 그 독자에게서 그 본문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다. 번역은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수반하는 모험이다. 번역은 단순한 의미 전달에서부터 새로운 의미의 굴절과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기능을 태생적으로 행사한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를 '도(道)'로 번역하였던 초창기 역사는 선교신학의 견지에서도 참으로 중요하다. 동양의 도 사상에 익숙해 있던 당시 우리나라 식자층에서 기독교가 쉽게 접목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성인신(道成人身) 개념이었을 것이다. 이 개념이 기독교의 한국 선교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에서 '도'가 '말씀'으로 바뀐 배경에는 도교(道敎)나 도가(道家)에 대한 경계도 없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도'를 '말씀'으로 바꾸고 보니 또 이것이 본래 샤머니즘의 언신(言神)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26] 때문에 기독교로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달리 생각하면, '말씀'이 우리 민간신앙에서 하나님, 곧 신(神)의 어원이었다는 것은 민간신앙과 기독교신앙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道)'와 함께 '말씀' 역시 민간신앙에 파고드는 기독교 선교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은 모험이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려 할 때 어떤 장치도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굴절을 막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 굴절이 의미의 연속성 내지는 확장성을 갖는

26) 말씀≪용비어천가(1447)≫ "존대 말은 샤마니즘 신의 어원이다. [말;言]+[씀;神]-ㅡ..."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85089

www.kci.go.kr

지, 아니면 완전히 단절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지 하는 판단은 주석적 작업을 거쳐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상언어 대응어에 대한 이해를 조명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 14절의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이다.

(2)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출 3:14) – 그리스어, 라틴어 번역[27]

히브리어 '에흐예'는 히브리어 '하야'("to be") 동사의 칼 미완료, 1인칭 공통 단수형으로 그 뜻은 "나는 … 일 것이다(I will be)"이다.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음역하는 신명사문자(神名四文字) YHWH는 같은 동사의 3인칭 단수형으로 그 뜻은 "그는 … 이다(he is)"다. 히브리어 '아셰르'는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관계대명사로서 영어의 who, which, what, that 등에 해당되는 말이다.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되지만 실제 사정은 좀 복잡하다.

이 히브리어 표현이 고대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 호 온"으로 번역되었다. 그리스어 '에고'는 1인칭 단수 대명사 주격이다. 뜻은 "나"다. 그리스어 '에이미'는 직설법 현재 능동 1인칭 단수 동사다. "나는 … 이다", 혹은 "나는 있다/존재한다"라는 뜻이다. 그리스어 '호'는 남성 단수 주격 정관사다("the"). 그리스어 '온'은 그리스어 동사 '에이미'의 현재 남성 단수 주격 능동 분사다. 뜻은 "나는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어 칠십인역 그리스어 번역은 궁극적 실재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의 영원성에 착안한 번역이다. 이 그리스어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글자대로는 "나는 있는 자다"이다. 영어로는 이것을 "I am the one who is." 혹은 "I am the BEING."으로 번역한다.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다. 고대역 중에서 러틴어 불가타(Vulgate)는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에고 숨 퀴 숨"(ego sum qui sum)이라고 번역한다. 영어 번역의 "I am who I am"이 바로 라틴어 번역과 번역 방법이 같은 것일 수도 있다.

---

27) 민영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와 '에고 에이미 호 온'", 「들소리문학」 제 8호 (2012, 여름호), 201–210쪽에서 번역 문제를 상세히 진술함.

www.kci.go.kr

이 번역과는 대조적으로 히브리어 표현을 헤브라이즘에 따라 번역한 고대 그리스어 역도 있다. 아킬라역(Aquila)과 테오도션개정역(Theodotion)이다. "에소마이 호스 에소마이".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문자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축자(逐字) 번역이다. 이 번역은 궁극적 실재를 정적(靜的) 존재(存在)로 보지 않고, 움직이는 동적(動的) 실재(實在)로, 활동(活動)하는 실재(實在)로 보려고 하는 이해를 반영한다. '에소마이 호스 에소마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who/what I will be"가 된다. 대강의 뜻을 옮겨보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가는 그러한 나일 것이다."

일부 타르굼 온켈로스(TO, TNf, FTv)과 사마리아 타르굼(Sam T)과 시리아역 페쉬타Pesh) 등은 이 구절을 의도적(意圖的)으로 번역(飜譯)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되어 번역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 탓이다. 이것 역시 번역의 한 방법일 수 있다.

히브리어 표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헤브라이즘에 입각하여 번역해 보려는 노력이 근대에 이르러 '메시아 유대교'에서 시도되었다.

> 14 God said to Moshe, "*Ehyeh Asher Ehyeh* [I am/will be what I am/will be]," and added, "Here is what to say to the people of Israel: '*Ehyeh* [I Am or I Will Be] has sent me to you.'" 15 God said further to Moshe,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Yud-Heh-Vav-Heh* [[ADONAI]],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vraham, the God of Yitzchak and the God of Yaakov,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this is how I am to be remembered generation after generation. (Exo3:14-15CJB)[28]

CJB는 히브리어 음역과 축자적 의미를 둘 다 동시에 제시하면서 정적 존재

28) CJB–*Complete Jewish Bible*. Copyright © 1998 by David H. Stern. Published by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Inc. www.messianicjewish.net/jntp. Distributed by Messianic Jewish Resources International.

www.kci.go.kr

와 움직이는 실재를 다 표현해 보려한다.

(3) 동양의 선택[29] – 히브리어 "흐예 아셰르 에흐예"의 한문번역

「代表者譯本(대표자역본)」(1854)의 "我自有而恒有"(아자유이항유)는 "나는 자연히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늘 있는 자"라는 뜻이다. 「브리지만-컬버슨譯」(1854/1863/1896)의 "我自然而然者也"(아자연이연자야)는 "나는 자연히 있는 자"라는 뜻이다. 「쉐레쉐브스키譯」(1874/1912)의 "我乃自有永有者而"(아내자유영유자이)는 "나는 스스로 있고, 영원히 있는 자"다. 「新譯本(신역본)」(1976/2010) 14절 번역 "自有永有者"는「쉐레쉐브스키譯」(1874/1912)의 "自有永有者(자유영유자)"와 같고, 15절 YHWH는 전통적인 번역을 따라 "耶和華(야화화)"라고 하였다. 「和合本(화합본)」(1890-1919)의 "我是自有永有的"(아시자유영유적)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있는 자"로 번역한다. 모두가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의 번역이 아니고, 그리스 칠십인역 "에고 에이미 혼 온"의 번역이다.

「現代中文譯本(현대중문역본)」(1979)은 출애굽기 3장 14절 번역에서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번역들 곧「代表者譯本」,「브리지만-컬버슨譯」,「쉐레쉐브스키譯」,「和合本(화합본)」등과는 다른 번역을 한다. 14a절의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는 "我是 創始成終的主宰"(아시 창시성종적주재) 곧 "나는 처음으로 시작한 자[創始者(창시자)]요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종결자[成終者]인 주재(主宰)"로 번역한다. 이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번역한 것인지,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에고 에이미 호 온'을 번역한 것인지 선뜻 판단하기가 어렵다. 히브리어 본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허정신(許鼎新)이 번역한 "我是那位我是"(아시나위아시), 혹은 황춘생(黃春生)이 시도한 "我是我所是"(아시아소시, I am who I am) 혹은 "我將是那將是的" (아장시나

29) 민영진, "동양의 선택",「들소리문학」제 9호 (2012, 겨울호), 202–214쪽에서 발췌함

www.kci.go.kr

장시적, I will be what I will be)여야 한다.[30] 「現代中文譯本(현대중문역본)」의 해당 구절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번역문의 두 뜻을 다 확보해 보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정적 존재와 예측할 수 없이 스스로 움직여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동적 측면을 다 살려보려고 한 번역이다. 14b절의 '아셰르 에흐예' 마저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와 똑같이 "創始成終的主宰(창시성종적주재)" 곧 "창시자(創始者)이면서 동시에 마감하는 자(成終者)인 주재(主宰)"로 번역한다. 이것 역시 히브리어 '아셰르 에흐예'나 그리스어 번역의 '호 온'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創始成終的主宰"는 한자어로 새로 만들어진 표현이다. 15절의 히브리어 신명사문자(神名四文字) YHWH를 출애굽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6장 3절 두 곳에서만 '耶和華(야화화)'로 음역한 것은 KJV의 경우처럼 이 두 본문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계시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려고 전통적인 음역 이름 "야화화"를 두 번 활용한 것이다. 그 밖에는 각주가 밝히듯이 「현대중문역본」은 YHWH를 다 "상주(上主)"로 번역한다.[31]

「呂振中譯本(려진중역본)」(1970)과 「新譯本(신역본)」(1976/2010)을 더 본다. 「呂振中譯本(려진중역본)」(1970) 출애굽기 3장 14절은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我是永恆主耶和華"(아시영긍주야화화)로 번역한다. "나는 영원무궁토록 주 여호와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기존의 「代表者譯本」, 「브리지만-컬버슨譯」, 「쉐레쉐브스키譯」, 「和合本」, 및 「現代中文譯本(현대중문역본)」의 해당본문 번역과도 다른 번역이다. 이 번역 역시 단순히 해당 히브리어 본문 하나만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을 종합한 것이다. "나는 영원무궁하다(我是永恆 아시영긍)"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반영이고, "主耶和華(주야

30) 「我是我所是」, 「我將是那將是的」, 黃春生牧師, "耶和華(Jehovah)是上帝的名字嗎？", http://huangchunsheng-biblestudy.blogspot.kr/2012/08/jehovah.html; 「我是那位我是」, 許鼎新牧師, "關於神的名字「耶和華」的改譯問題" http://www.cclc.org.hk/bookp_share_details.php?id=1

31) 중국 현대어 번역에서는 YHWH를 Jehovah로 읽어 "耶和華"로 음역(音譯)하는 전통적 번역을 떠나 Yahweh로 읽어 「耶和威」, 「亞衛」, 「耶赫維」, 「耶畏」, 「耶威」, 「雅巍」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www.kci.go.kr

화화)"는 YHWH를 "主"라고도 하고, "耶和華"(야화화)라고도 하는 것을 둘 다 번역에 반영한 것이다. 14b절의 '아셰르 에흐예'는 "永恆主耶和華"(영긍주야화화) 곧 "영원무궁토록 주 야화화"라고 번역한다. 이것 역시 히브리어 '아셰르 에흐예'의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번역과 전통적으로 읽어 온 "主(주)"와 "耶和華"를 합하여 새로 만들어 낸 것이다. 15절의 히브리어 신명사문자(神名四文字) YHWH마저도 "永恆主耶和華"(영긍주야화화)로 번역한 것은 중국어 번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呂振中譯本」만의 특징이다.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및 YHWH, 이상 셋을 같은 말로 번역하였다.

(4) 동양의 선택 – 한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 초창기의 「구역」(1911)의 "나는 ᄌᆞ연히 잇ᄂᆞᆫ쟈", 「개역」(1938, 1961)과 「개역개정판」(1998)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등은 출애굽기 3장 14절 번역에 있어서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에고 에이미 호 온'을 번역한 중국어 번역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공동번역」(1977)과 「표준새번역」(1993)[32]의 "나는 곧 나다"는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의 형식은 살렸으나 의미까지 살렸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나는 곧 나다"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에고 에이미 호 온'의 번역도 아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번역은 출애굽기 3장 14-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요청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그러한 요청을 일축(一蹴)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은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릴 수 없는 이름"(nomen ineffabile, ineffable name)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다. 하나님은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에흐예') 나다('아셰르 에흐예')"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가 지닌 "무궁(無窮)한 생성(生成) 변화(變化)"(I will be what

32) 2004년 이후부터는 「새번역 성경전서」, 약칭 「새번역」

www.kci.go.kr

I will be)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 자신의 뜻대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자체"('아셰르 에흐예')임을 선언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체언에 붙어서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나는 ….) 이다"의 활용을 미완료태로('에흐예', "나는 … 일 것이다") 하고 있을 만큼 생성(生成)과 변화(變化)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곧 나다"라는 번역은 이것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히브리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에고 에이미 호 온'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번역을 보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혹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차이를 지적한 두 세 곳의 본문을 기억하고 싶다. 흔히들 말한다. 히브리적 사유의 독특성은 그것이 그리스적 사유와 비교될 때에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자주 헬레니즘과 비교되어 설명된다. 언어의 차이는 곧 생각의 차이로 이어지고, 때로는 신앙의 성격까지도 규명하려고 한다. 그리스적인 신앙은 피안적(彼岸的)이고 구약성서적인 신앙은 종말론적(終末論的)이라고 비교되기도 한다.[33] 그리스어가 정적(靜的 static)인데 반해 히브리어는 동적(動的 dynamic)이라고. 그리스적 사유에서는 궁극적인 것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일 수 없고, 정적인 것인데 반해, 히브리적 사유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이다. 바르는 이렇게 말한다.[34]

> "정적(靜的)인 것과 동적(動的)인 것의 대조. 그리스인들이 궁국적으로 관조(觀照)에 관심했다면, 히브리인들은 행동(行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스인들에게 "움직임"은 궁극적 실재일 수 없다. 궁극적 실재는 과정(過程 becoming)과는 구별되어

33)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토를라이프 보만 지음/허혁 옮김, 「히브리적 思惟와 그리스적 思惟의 比較」(분도출판사, 1975). Thorlief Boman, *Das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fünfte*,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68; James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SCM Press Lt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34) 민영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와 '에고 에이미 호 온'", 「들소리문학」 제 8호 (2012년 여름호), 201–210 중에서 202쪽.

www.kci.go.kr

야 하고 변화가 없는 것(changeless)이어야 한다."[35]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게서 우리는 실재(實在)의 "유(有)"만이 아닌 "생(生)"과 "화(化)"를 볼 수 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는 "유(有)"라기보다는 "생(生)"과 "화(化)"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노자와 장자가 "도(道)"를 이해한 것에서 어떤 암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노자(老子)가 도(道)를 주로 생성(生成) 변화(變化)의 '근원(根源)'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궁극적인 귀착점이라고 강조한 데 반하여, 장자(莊子)는 도를 무궁한 생성 변화 그 자체로 파악하고, 근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그 변화에 몸을 맡겨 함께 흐르거나 그대로 변하기를 더욱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덕경」은 주로 도의 '생(生)'하는 측면을 말하였는데, 「장자」는 도의 '화(化)'하는 기능을 부각한다. (Girardo[36], 79)"(오강남 풀이, 「장자」[37], 22)

2. 윤리

번역의 의미 전달의 기능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이것은 성경 번역에서 먼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반 번역사업 기관에서 번역자의 윤리 규정을 만들고 번역의 질을 검토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38] 최근에 이르러 성서 번역학계에서도 번역자의 윤리 문제를 거론하

35) James Barr, 윗글, 10–11, "The contrast between static and dynamic. The Greeks were ultimately interested in contemplation, the Hebrews in action. Movement could not be ultimate reality for the Greeks, to whom being must be distinguished from becoming, and the ultimate must be changeless."

36) Girardo, N. J. *Myth and Meaning in Early Tao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37) 오강남 풀이 「장자」, 서울: 현암사, 1999

38) Ben Van Wyke, "Ethics and translation",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Edited by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0), 111 – 115

www.kci.go.kr

기 시작하였다.[39] 번역자가 윤리 문제에 연관되는 것은 권력의 도전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번역에서 윤리와 권력이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40]

번역에서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비단 번역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번역은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는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한다. (1) 직접 번역자로 참여하는 일, (2) 번역자들이 번역과정에서 봉착하는 여러 가지 실제 문제를 번역자들과 함께 풀어가는 번역자문역이 되는 일, (3) 번역자들로 구성된 번역 팀에서 번역을 추진하는 번역조정역으로 참여하는 일, (4) 번역 과정에서 번역 소프트웨어 숙지와 활용을 돕는 번역 기술지원팀의 일원이 되는 일, (5) 컴퓨터편집과 인쇄를 담당하는 팀의 일원이 되는 것, (6)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번역기획담당자 등이 있다.[41] 번역은 이들의 협동작업이다.

성경번역자가 된다고 할 때는 직접 번역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사다. 번역자로서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번역자문역이나 번역조정역의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그러한 이들은 번역 기술지원팀이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여야 하고 타이프세팅을 거쳐 인쇄하고 제본하는 과정과 실무에 대한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 퍽 오래 전이라고 기억되는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번역자와 번역자문역을 모집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네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응모하도록 하였다. (1) 잦은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적 건강을 갖춘 이, (2) 다른 번역자들과 함께 협조하여 일할 수 있는 팀정신을 가진 이, (3) 번역을 사용할 교회와 원만한 관계를 가진 이, (4) 전문 분야(여기에서는 "성서번역")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거나 대학에서 유사 과목을 전공을 한 이.

---

39) Steven Voth, "Towards an Ethic of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제20호(2007년 04월), 242–278/ 스티븐 보스, 민경식 역, "성서 번역과 윤리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제20호 별책(2007년 04월), 253–280;

40) Philip H. Towner and Roy E. Ciampa, "The Nida Institute, its History, Scholarly Focus, and the "Turn to Power" in *Translation Studies*", 「성경원문연구」 제39호(2016년 10월), 414–433. 이 글은 주로 번역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부분적으로 1–4부 중에서 3–4부에서 "3. Power and Ethics of Translation" "4. Power and ethical issues to 'identity mapping'"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41) 민영진, "성경 번역자가 되어 보실래요?" 「침신투데이」(2011년 5월), 4–5쪽.

www.kci.go.kr

잦은 여행은 번역자보다는 번역자문역에 특히 요구되는 것이다. 번역자문역을 맡은 이들에게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여러 번역 팀을 만나는 일은 물론이고, 때로는 오지에 흩어진 개인 번역자들을 따로 따로 방문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바다로, 육지로, 하늘로, 육지에서는 다시, 걸어서,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버스로, 기차로; 전기가 있는 곳에, 전기가 없는 오지에; 번역자문역은 어디든지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온갖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음식을 가리거나, 태생이 풍토병에 취약한 몸을 가지고 있거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하면 처음부터 실격이다. 성서번역은 개인 번역이 아니고 번역팀의 공동 산물이기 때문에 팀스피릿이 요구된다. 자기주장이 강한 경우는 번역자가 되기도 어렵고, 번역조정역을 맡기에도 부적격이다.

성경번역자는 기독교교인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교파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화합형의 인물이어야 한다. 그가 평신도라면 교회 안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번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번역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밀려나 있다. 이것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오랜 경험의 결과로 얻은 교훈이다. 먼저 번역자의 사람됨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번역 전문 분야의 지식이 요청되는 것이다. 성서원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 원천언어에 대한 지식, 그것을 번역하여 읽을 수용언어, 곧 번역자 자신의 언어에 대한 지식, 이 밖에 언어학, 번역이론, 의미론 등에 대한 이해, 주석의 활용 능력,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능력, 의사소통어로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 최소한 한 언어에 능통할 것 등이 요구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자나 번역자문역에 발탁된 이들도 곧바로 번역업무를 맡지 않는다. 합격된 이들 중에 신학을 전공한 이들은 언어학 쪽에서 일정 과목을 1-2년 이수해야 하고, 언어학을 전공하는 이들은 성서학 분야에

www.kci.go.kr

서 규정된 요청과목을 1-2년 동안 이수하여야 한다. 번역자문이 되기 위한 과정은 번역자 과정보다 더 긴 실습과 수련 과정이 요청된다.

이상에서는 주로 각국 성서공회에서, 혹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번역팀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 성서공회 이외에도 번역 선교 기관들이 많이 있다. 어느 기관에서든지 공통적인 요청 중에 하나는 몇몇 지역에 흩어져 있는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일정 기간 번역자 훈련을 받는 일이다. 소수민족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언어를 배우는 일이다. 번역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조건은 희생일 것이다.

지난 35년 동안의 번역 컨설턴트 경험에서 배운 번역자의 책임과 윤리 중에서 가장 으뜸은 번역자를 돕는 소프트웨어에 빨리 친숙해지고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번역자는 연구하는 학자여서는 안 된다. 누적된 연구 결과가 들어 있는 자료, 번역자가 반드시 늘 휴대해야 하는 자료를 가까이 두고 능숙하게 사용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팀원들과 협조하여 주어진 마감 기간에 번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 중 하나가, 예를 들면, 번역자들에게 제공되는 Paratext다. Paratext는 성경번역자의 번역을 돕도록 고안된 도구다. 번역자만이 아니고, 번역자에게 성경 본문의 주석적 배경을 밝혀주는 주석자문역과 번역자문역이 알아야 할 50여년의 축적된 경험을 일러준다. 뿐만 아니라 파라텍스트는 번역프로젝트 지원팀이 번역자들을 도와 번역 내용과 편집 형식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번역을 생산해 내도록 번역자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파라텍스트 안에 장착된 번역자 핸드북(The UBS Translation Handbook Series)은 성경 각 권의 주석,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한 정보와 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단순히 일반 성경 독자를 위한 주석이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을 위한 주석이다. 성경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는 팀원들(번역자들, 주석자문역, 번역자문역, 번역프로젝트 지원 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보내고/받기 Send/Receive 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누구나 거기에

www.kci.go.kr

들어가서 번역에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번역 초안을 고칠 수도 있다. 모든 교정 기록은 기록자의 이름과 함께 기록으로 다 남게 되어 있다. 번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안에 장착하여 운영하면 성경번역자는 직업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번역기의 발달은 수년 내에 번역자라는 직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스티븐 보스는 "성서 번역과 윤리에 대한 고찰"에서 인간 번역자에게 윤리적 도전을 해오는 두 가지 요소를 '이데올로기'와 '마케팅'으로 요약한다.[42] 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삶과 문화를 규정하고 특징짓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개념들을 체계화시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달리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현실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43] 마케팅은 "성서 번역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가격을 책정하고, 상품을 보급하고, 판매를 촉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반감과 조직적인 차원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4]

몇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본다. 우리말「새번역」디모데전서 3장 2-4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 직책을 맡고자 하는 이의 입후보 조건이 나열되어 있다.「새번역」초안에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번만 혼인한 사람이어야 하며" 라고 하여 평생에 한 번만 혼인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스어 μιᾶς γυναικὸς ἄνδρα는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1) "한 번만 혼인했어야 하며"[45], (2) "자기 아내에게 신실해야 하며"[46], (3)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

42) 스티븐 보스, 민경식 역, "성서 번역과 윤리에 대한 고찰",「성경원문연구」제20호 별책(2007년 04월), 254 이하.

43) 윗글, 255.

44) 윗글, 262.

45) "Now a bishop must be above reproach, married only once, ..." (1 Ti 3:2a NRS)

46) "So an elder must be a man whose life is above reproach. He must be faithful to his wife..." (1Ti 3:2a NLT)

www.kci.go.kr

며"[47]. 번역을 다 끝내고 나서 대한성서공회는 시험본(trial edition)을 만들어 1천여 부를 각 교단 총회에서 추천한 1천여 명 목회자들에게 보내어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번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2-4절의 번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한다는 기존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한 번만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번역을 재고하자는 것이었다. 그리스어 원문이 일부일처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생 한 번만 혼인을 한 남자여야 한다는 새로운 번역은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역 목회자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로 재혼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목회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새 번역의 보급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번역자들은 자기들을 파송한 교단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여러 단계에서 여러 번 논의한 끝에 전통적인 번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번역자에게 다가오는 윤리 문제는 번역을 읽을 집단 독자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도 온다. 라오스 교회는 2012년 11월 29일 지금 그들이 읽고 있는「라오역 개정」성경을 봉헌하였다. 컨설팅을 하던 어느 날, 라오교회총회본부 건물 안에 있는 번역실[48]에 들렀을 때 라오어 번역 문체 다듬는 일을 담당한 여직원이 그의 컨설턴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에스겔서 22장 27절을 펴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컨설턴트에게 이 구절 전체를 좀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는 것들은 이리떼와도 같아 탈취한 것 물어뜯고 부정축재 하려고 인민을 학살한다." 에스겔 예언자가 이스라엘 지도층에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내용 중 일부다. 라오어 문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가 그 본문을 보고 걱정

47) "Now a bishop must be above reproach, the husband of one wife, ..." (1Ti 3:2a RSV)

48) 번역작업이나 개정작업은 오직 이 "번역실"로만 제한되어 있었다. 감수위원들과의 확대회의를 할 경우에는 당에서 파견되어 나온 당원에게 보고하고 같은 교회 건물 안의 다른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www.kci.go.kr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겨우 신앙의 자유를 조금 얻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본문이 자칫 공산당 당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정부 고위 공직자"란 모두 공산당 당원들인데, 고위층 "당원"을 비난하는 것은 곧 "당"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 번역 본문이 당원의 오해를 살 경우, 이 번역을 읽고 있는 라오스 교회는 큰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걱정이었다. 이 번역 본문이, 라오스의 고급 당원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규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이나 당원들이 그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아주 어려운 사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민 중에는 어느 누가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당과 정부를 공격할 수도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는 거였다. 그러니, 이번에는 번역고문이 번역윤리 문제로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그렇게 큰 위험이 예상된다면 이 번역 본문을 그대로 고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회적으로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고 낱말을 모호한 고어로 바꾸어 본문을 위장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런 본문이 어디 한 두 곳인가! 이런 본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개정 작업을 한 당사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기독교의 종교 활동을 허락받은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은 상당 기간 동안은 본문을 왜곡하거나 위장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high officials in the midst of the government)를 "왕궁에 있는 왕의 대신들"(king's officials in the court)로 바꾸자고, 공산당은 왕을 싫어한다고,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왕을 없애고 세운 "막스-레닌 일당 사회주의 공화국"이니까 오히려 당에서도 좋아할 것이라고. "번역자여 그대는 반역자다"("traduttore, traditore", "translator, traitor")를 한 번 더 실감한다.

우리나라에서 군사독재시절에 한 대학교수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

www.kci.go.kr

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공동번역」 미가 2:1-2)

이 본문을 당시 「공동번역성서」로 학생들 앞에서 읽고 나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49] 아마 그가 같은 본문을 「개역」으로 읽었다면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는 또 우리 역사에서 쿠데타의 주역이 암살되자, 「공동번역」 이사야 14장 4-12절 본문을 읽으면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설교했다.

> "4 … 웬일이냐, 폭군이 죽다니, 그 시퍼런 서슬이 사라지다니. 5 야훼께서 꺾으셨구나. 6 성이 나서 백성들을 치고 또 치더니… 7 이제 온 세상이 한숨돌리고 평온해져 모두들 환성을 올리게 되었구나. 8 삼나무와 레바논의 송백까지도 네가 망한 것을 보고 손뼉치며, 네가 쓰러진 후에는, 아무도 저희를 찍으러 올라오지 않는다고 좋아하는구나. 9 저 땅 밑 저승은 너를 맞기 위하여 들떠 있고,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자들의 망령을 모두 깨우며 모든 민족의 왕들을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공동번역」 이사 14:4-9)

이런 본문도 공산국가에서 당원들에게 들키어 자기들의 독재자를 저주하는 본문, 암살을 음모하는 본문으로 오인되면 이 성경 보급 못 한다. 번역자가 번역 윤리를 어겨야 하는 문제 앞에 불가피하게 서게 되는 때가 있다. 틴들을 위시한 초기 영어성서 번역자들이 교회로부터 화형을 당한 것은 교회가 볼 때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들이 반역자(叛逆者)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반 신도가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오역을 하였기 때문에 반역자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대로를 번역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는 반역자라는 정죄를 받은 것이었다. "번역자가 반역자"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이

49) 한국구약학회장을 역임한 고 김찬국(金燦國)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www.kci.go.kr

렇게 적용된다.

이 밖에 마태복음 1장 23절의 παρθένος를 「구역」(1900)에서부터 「개역」(1961)에 이르기까지 이미 "처녀"라고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새번역」(2004) 등이 사도신경의 "동정녀"로 돌아간 것이나, 「표준새번역」(1993)/「새번역」(2004) 등이 마태복음 8장 20절의 ὁ δὲ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지 못하고 "인자(人子)"라고 한 것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의 μονογενής를 "외아들"로 번역하지 못하고 "독생자"로 한 것 등이 다 이데올로기나 마케팅과 무관하지 않다.

3. 권력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번역학에서는 번역에 작용하는 권력의 문제도 다루기 시작한다.[50] 번역은 중립적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그 번역을 기획하고 보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다. 번역은 단순히 원천언어의 의미를 수용언어로 잘 옮기는 작업만이 아니다. 유진 나이다에게서 나는 이렇게 배웠다. 그나 나나 순진하던 시대였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고의로 원문이나 번역 본문을 선별하고 재구성하고 삭제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나이다는 원천언어와 수용언어 사이의 차이 때문에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첨가(addition)와 삭제(subtraction)와 변경(alterations)이 불가피하다고 한다.[51] 그러나 이것은 의미전달을 위한 작업 과정에서 두 언어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다. 종교와 유착된 권력이 본문을 변경한 고전적인 예 하나만 예를 더 든다.

최초의 성서 번역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성

---

50) Maria Tymoczko & Edwin Gentzler(eds), *Translation and Power*, Univ of Massachusetts Press, 2002; Philip H. Towner and Roy E. Ciampa, "The Nida Institute, its History, Scholarly Focus, and the 'Turn to Power'" in *Translation Studies*, 「성경원문연구」 제39호(2016년 10월), 414–433.

51)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도서출판 두란노,1986), 211.

www.kci.go.kr

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다. 이 그리스어 번역은 달리, 그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들의 인원수를 따라 "70인역(LXX)"이라고도 불린다. 이사야서 19장 24-25절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도 잘 반영되어 있듯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24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새번역」사 19:24-25)

기원전 8세기나 지금이나 중동 세 나라는 늘 무력 충돌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사야 당시의 국제사회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중심이었다. 지금은 이 세 나라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에서 명멸한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레바논을 위시한 아랍세력(시리아/이란/이라크) 등을 포함한다. 이 세 나라 사이의 미움과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인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엄청난 비전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철천지원수 이집트를 하나님이 "내 백성 이집트야!"(암미 미츠라임)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나 사용하시는 표현인 "나의 손으로 지은"(마아세 야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시리아(아슈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본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그리스어로 옮기려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층과 디아스포라 유대교당국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함께 번역에 압력을 가한다. 어쩌면 종교 권력은 그것을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

www.kci.go.kr

고 디아스포라 신학[52]이라고 생각하고 디아스포라 신학을 번역에 반영하도록 촉구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리스어 칠십인역 이사야서 19장 24절

> 24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25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새번역」 사 19:24-25a)

여기까지는, 이사야의 히브리어 본문 내용이 유대종교사회당국(권위)에게 좀 불만이 있어도, 이 번역을 트집 잡지는 않는다. 문제는 다음 절 이사야서 19장 25b절이다.

> "나의 백성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53] (「새번역」 사 19:25b)

결과적으로 그리스어 칠십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이 이렇게 왜곡되어 번역됨으로써 번역자들은 본문 왜곡을 강요하는 권력에 굴복하였다고 하는 번역윤리 문제에 걸려들고 만다.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 역시 그들의 권력으로 본문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 윤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이사야서 19장 24-25절은 견원지간의 대결구도 속에 있

---

52) 민영진, "유라시아 유민 150년: 한반도 지평에서 본 추방과 해방", Canon & Culture, 제9권 2호(통권 18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5 가을, 5–32 중 25–26 "디아스포라의 자기 이해: 알렉산더 디아스포라의 이사야 재해석"에서는 디아스포라의 이사야 이해의 긍정적인 면을 관찰하려고 했다. 그러나 번역에서 본문 변경을 강요한 것이 합법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53) ἧν εὐλόγησεν κύριος σαβαωθ λέγων εὐλογημένος ὁ λαός μου ὁ ἐν Αἰγύπτῳ καὶ ὁ ἐν Ἀσσυρίοις καὶ ἡ κληρονομία μου Ισραηλ (Isa 19:25 LXT)

www.kci.go.kr

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어 그들로 하여금 세계 평화에 공헌하게 하신다는 이사야의 비전이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가 평화를 이룩하려면, 그 정책이, 개별 국가의 이기적 탐욕을 벗어나, 받은 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 35년에 화형을 당하지 않고, 12 년 전에 이렇게 무탈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던 한 번역자를 보는 독자들은, 구태여 "번역자로 살아온 반역의 세월"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번역자가 번역 구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반역의 세월을 살아온 이 번역자를 용서해 달라고 빌 염치는 없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가 남기고 떠나는 문제를 기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리고 싶다.

한 번역자의 기도

- 민영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 해
당신의 말씀 번역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씀
훼손할 수도 있기에
무지와 무능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번역해도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은
우리 작업의 결함을
하나님보다 앞서 잘도 지적합니다

www.kci.go.kr

지적받은 것 그대로 다 반영하여
번역이 완벽해진다면
그런 경사(慶事)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할수록 당신의 몸은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 번역하는 일에
당신의 용서와 이해가 있기에
우리의 수고를 이쯤에서 그치고
잠정적 최종판 만들어
이 말씀 인쇄하고 제본하여 보급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번역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번역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 참고문헌

고은이, "내몽골의 하나님 용어", 「성경원문연구」 제18호 (2006), 130-141.

민영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와 '에고 에이미 호 온'", 「들소리문학」 제 8호 (2012, 여름호), 201-210.

민영진, "Bible Translations for Asian Audiences: Nestorian Experiment in T'ang Dynasty China and Mongolian Equivalent for Deity", 「성경원문연구」 제18호 (2006), 98-113.

민영진, "다바르, 로고스, 도", 「들소리문학」 제11호 (2013년 6월), 204-216.

www.kci.go.kr

민영진, “동양의 선택”, 「들소리문학」 제 9호 (2012, 겨울호), 202-214.
민영진, “성경 번역자가 되어 보실래요?” 「침신투데이」 (2011년 5월), 4-5.
민영진, “유라시아 유민 150년: 한반도 지평에서 본 추방과 해방”, Canon & Culture, 제9권 2호(통권 18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5 가을, 5-32.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2005).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안교성, “현대몽골성경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제42호 (2018년 4월), 90-114.
오강남 풀이, 「장자」, (서울: 현암사, 1999).
토를라이프 보만 지음/허혁 옮김, 「히브리적 思惟와 그리스적 思惟의 比較」 (왜관: 분도출판사, 1975). 원제 Thorlief Boman, *Das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fünfte,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68.
Barr, James,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SCM Press Lt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Girardo, N. J. *Myth and Meaning in Early Tao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Spong, John Shelby, *BIBLICAL LITERALISM: A Gentile Heresy*, San Francisco: Harper One, 2016.
Towner, Philip H., and Roy E. Ciampa, “The Nida Institute, its History, Scholarly Focus, and the ‘Turn to Power’” in *Translation Studies*”, 「성경원문연구」 제39호(2016년 10월), 414-433.
Tymoczko, Maria, & Edwin Gentzler(eds), *Translation and Power*, Univ of Massachusetts Press, 2002.
Voth, Steven, “Towards an Ethic of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제20호(2007년 04월), 242-278/스티븐 보스, 민경식 역, “성서 번역과 윤리

www.kci.go.kr

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제20호 별책(2007년 04월), 253-280.
Wyke, Ben Van, "Ethics and translation",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Edited by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0), pp. 111 - 115.
黃春生,"耶和華(Jehovah)是上帝的名字嗎？",
http://huangchunsheng-biblestudy.blogspot.kr/2012/08/jehovah.html;
許鼎新, "關於神的名字「耶和華」的改譯問題"
http://www.cclc.org.hk/bookp_share_details.php?id=1

www.kci.go.kr

검색어

헤브라이즘
성서 직역주의
다바르
로고스
도(道)

Language, Ethics, and Power in Bible Translation

Young-Jin Min, Ph. D.
Former General Secretary, Korean Bible Society
Former Translation Consultant, United Bible Societies

The Hebrew word '*dabar*' (or '*lashon*', '*safa*', '*mila*', '*tora*', '*maamar*') had been translated into '*logos*' in the Greco-Roman period (cf. John 1:1). In the 19th century, the Greek word '*logos*' was translated into "*Tao*(道)" in the Asian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Such a choice of the equivalen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ebraism that has successfully met Asian ideas through the Greco-Roman Hellenism. This is an example of the effective transfer of mean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language."

When a translator fails to accumulate and utilize the translation experience as a public property, it is a matter of "ethics" of the translator. When a translator exposes the intellectual limitations, the problem of the translator's ethics will be raised. The responsibility and ethics of a translator are first and foremost related to his or her ability to use the translation software that helps him or her. A translator is not a researcher who is buried in the lab all the time, but rather a person who is close to the material containing

www.kci.go.kr

the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in Biblical studies, and who is responsible for translating through the proficiency by using such tools and cooperating with the translation team members to complete the translation by the deadline. One of the intellectual tools, which has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translation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many centuries in the field of Bible translation, is a software called PARATEXT made by UBS translation technical support team. PARATEXT is a tool designed to help Bible translators.

When church authorities, who are in charge of planning and promoting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and publishing and distributing the Bible, try to keep the Bible under the authority of the church and create an ideology to dominate the Bible, it becomes difficult to prevent the church authorities from engaging in the translation of the Biblical text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power" that forces translators to distort the text. For example, the translators of Isaiah 19:24, who would have attempted to translate the original Hebrew into Greek. Isaiah's radical vision that Egypt, Israel, and even Assyria will be a blessing for other nations on the earth as channels for God's blessings to all the people of this world, was unpleasant to the nationalist who thought only Israel as the chosen one. The power of religious authorities may have urged the translators to distort the text. As a result, only Israel has been chosen to be a blessing for other nations in the Isa-LXX 19:24.

www.kci.go.kr

Keywords

Hebraism
Biblical literalism
dabar
logos
Tao

■ 투고일: 2018년 7월 13일
■ 심사일: 2018년 7월 13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